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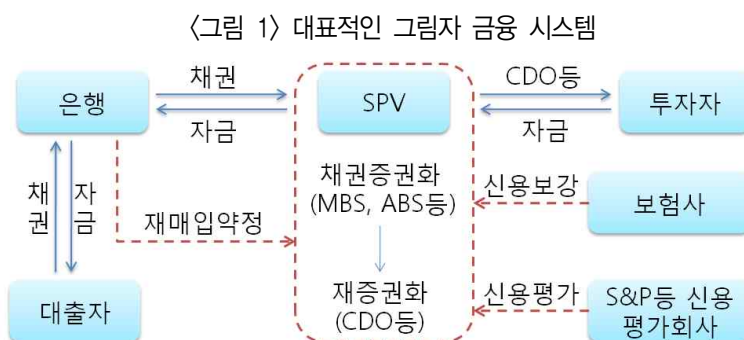


그림자 금융 시스템과 중국의 그림자 금융

왕양비 연구원

■ 그림자 금융(Shadow Banking)은 투자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파생금융상품(MBS, ABS, CDO, ABCP 등)을 이용하여 은행과 같이 신용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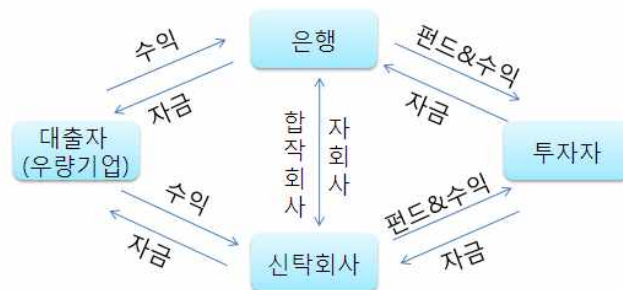
- 비은행금융기관도 신용 변환(credit transformation)과 만기 변화(maturity transformation)를 통해서 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자 금융을 ‘뱅크’으로 지칭함.
-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(special purpose vehicle, SPV)가 채권 등 미래에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자산 등을 증권화하여 신용을 창출하는 형태임.



■ 중국은 아직까지 정책적 장벽으로 인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, 은행과 신탁회사가 주도하는 ‘중국식 그림자 금융’이 성행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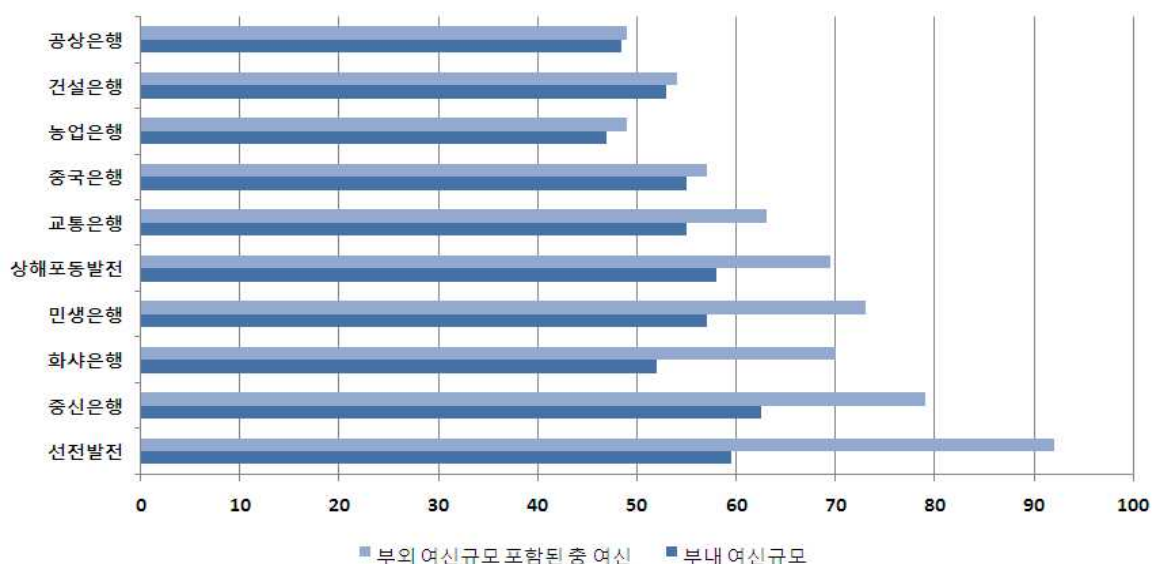
- 현재 중국 은행들은 마이너스인 실질 금리로 인해 예금유치가 어렵고, 통화당국의 긴축정책에 따라 21%까지 인상된 기준을 때문에 대출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임.
- 이에 따른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이 신탁회사와 협력하여 우량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예금의 증가 없이도 대출을 확대하고 있음.

〈그림 2〉 중국식 은행-신탁 합작 대출 네트워크



- 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우량기업을 선정하고 은행의 자회사인 신탁회사 혹은 은행과 합작한 신탁회사가 해당기업만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함.
-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우량기업은 사실상 대출을 받게 되고, 은행과 신탁회사 그리고 투자자는 해당기업으로 부터 대출금리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게 됨.
- 은행의 이러한 우회대출은 당국의 긴축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이 선호하는 수단이 되었으며, 이에 따라 2010년 은행-신탁 합작 대출규모가 은행 전체 부외 여신규모의 66.5%에 달했음.

〈그림 3〉 중국 대형은행 부내 여신규모와 부외 여신규모 비교(2010)



주 : 전체 자산규모 = 100

자료 : Haver Analytics: Fitch

- 이러한 중국식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통한 대출확대로 인해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음.